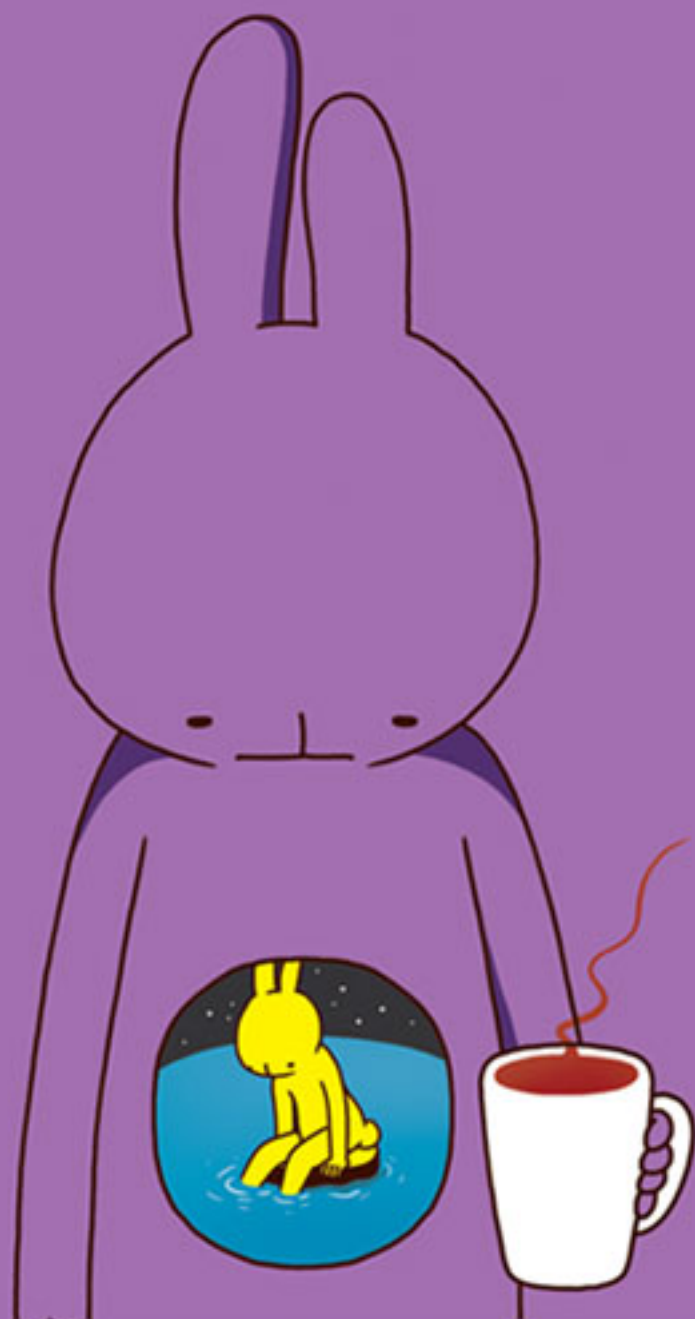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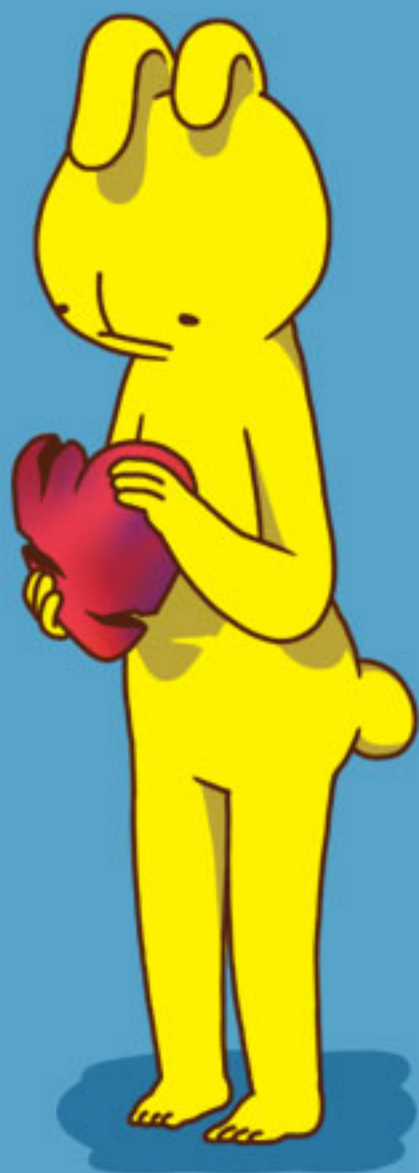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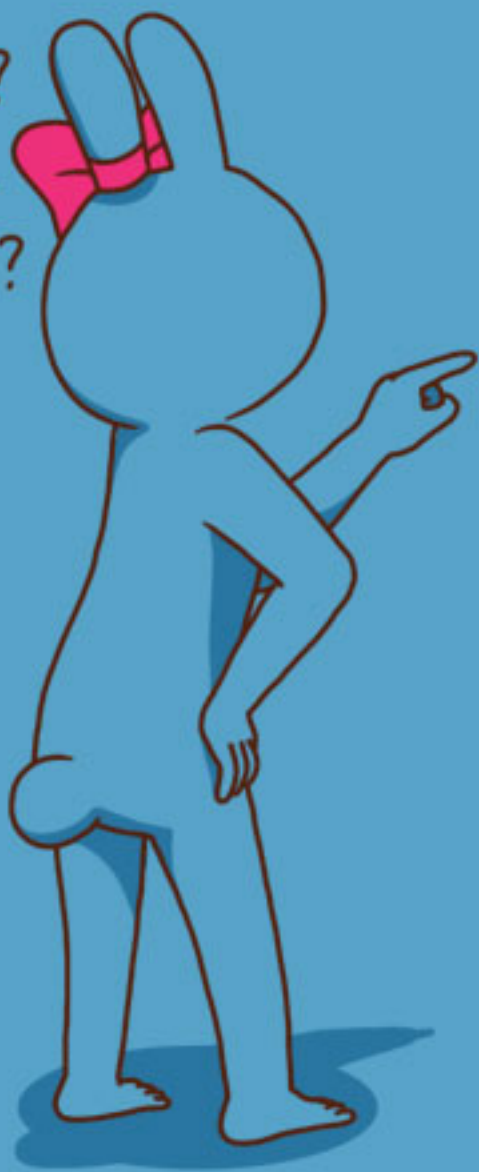


그까짓 사람, 그래도 사람

글·그림 설레다

에디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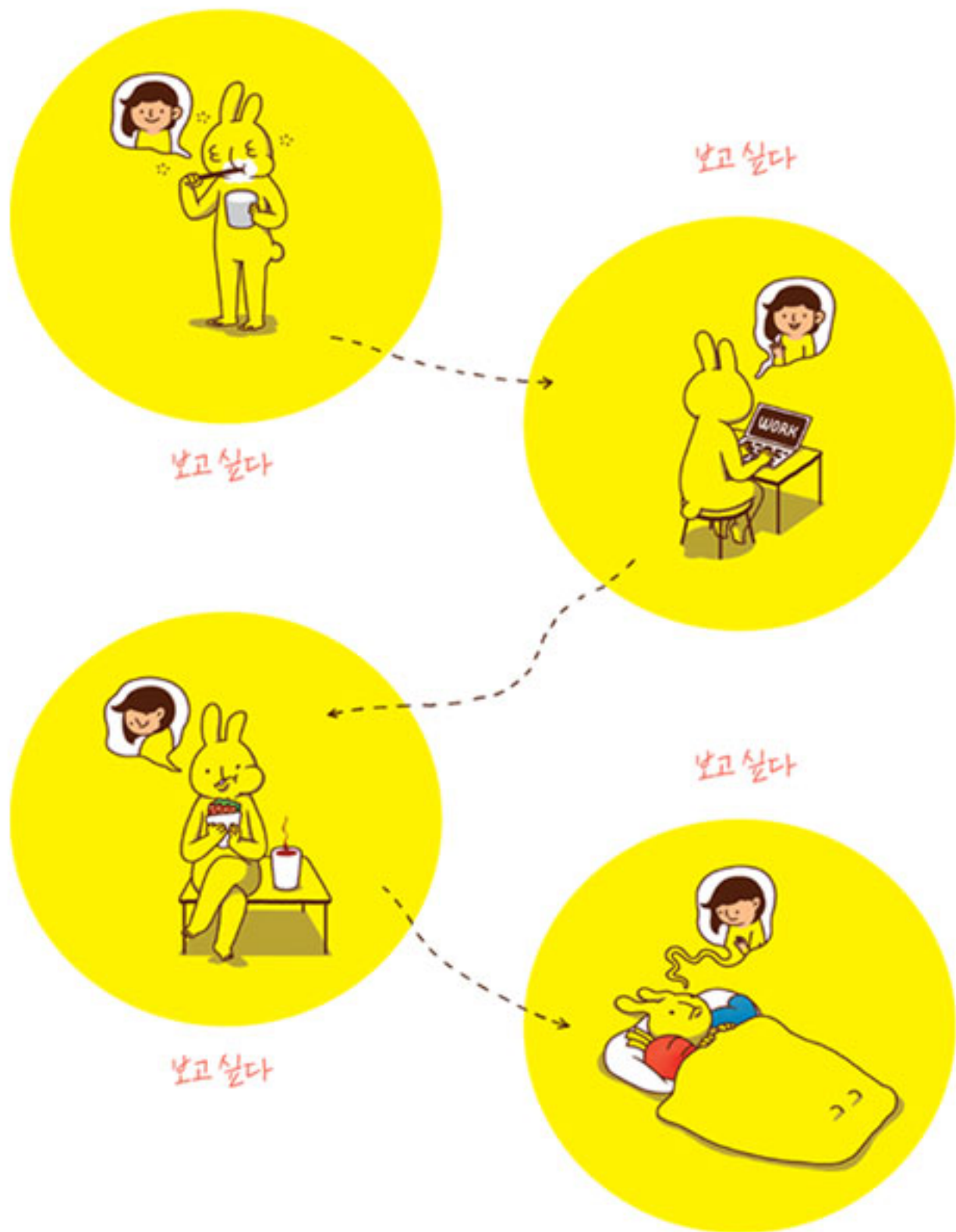
겨우 이거야?
좀더 많이,
더 줄 수 없어?



좋은사람이고 싶어서, 사랑하기 때문에...
다친 마음을 꼭꼭 숨기진 않았는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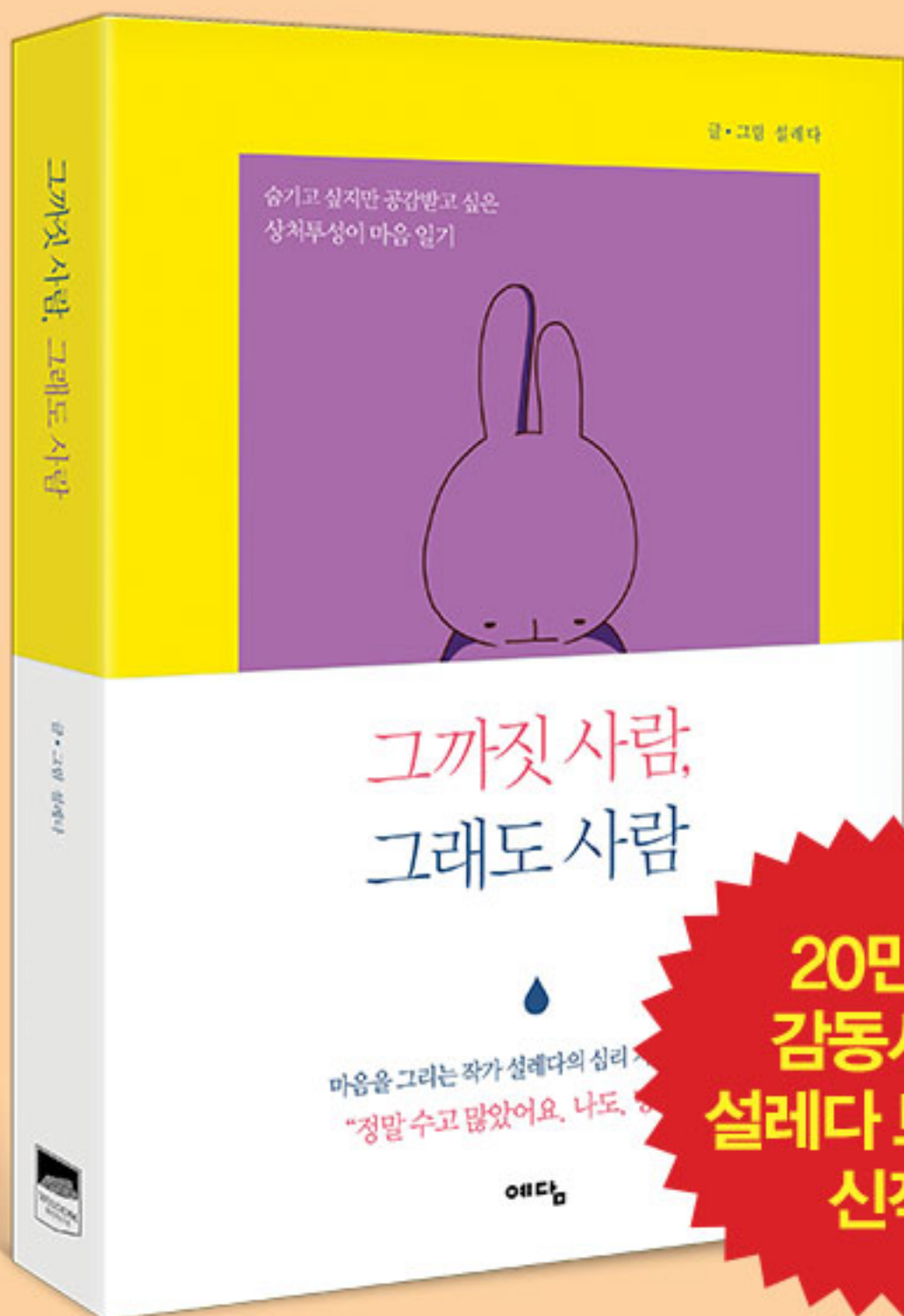
도대체 왜 그랬는지
아무리 생각해도
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죠.



그렇지만
생각만으로 따듯해지는 당신이 있어
참 다행이에요.

정말 수고 많았어 :)
있는 그대로 날 인정해줘서 고마운 당신





꼭꼭 숨겨둔 마음까지 안아주는
설레다의 심리 치유 그림에세이
〈그까짓 사람, 그래도 사람〉